

 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	2021. 8. 3.(화) 배포즉시(00시이후) 보도할 수 있습니다		
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	보도자료 PRESS RELEASE	친환경연구과장	송정흡	760-7310
		담당자	고윤정	760-7323
		홍보담당자	고희열	760-7581
동영상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(웹하드)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: 00시까지 결과 자료제공

토양검정, 지역별 대표필지 대상으로 추진

- 도농업기술원 매년 1,090지점의 읍면동별 대표필지 조사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읍·면·동별 토양 화학성을 대표할 수 있는 「대표필지 중심의 토양검정사업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토양검정사업은 지역별 토양 비옥도 평가와 이에 따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정책사업의 기본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.
- 그리고 토양검정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「흙토람(토양환경정보시스템, <http://soil.rda.go.kr>)」과 연계해 필지별 토양 정보를 농가에게 알려주고 작물별 필요한 비료사용량을 추천함으로써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.
- 올해부터 추진되는 「토양검정사업」은 도 농경지의 약 3%인 3,270지점을 대표필지로 선정하여, 읍면·동별 3년 1주기로 매년 1,090지점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대표필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지역별 필지 정보를 통해서 선정하였으며, 2021년에는 대정읍 290지점, 구좌 및 조천읍 400지점, 표선면 400지점의 토양 화학성을 조사한다.

- 이들 대표필지는 3년 마다 토양 산성도, 유기물, 유효인산 등 토양 비옥도 변화 양상이 평가되며, 현재 매년 추진되고 있는 석회 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공급량 산정 등에 활용된다.
- 특히,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토양검정은 영농현장에서 토양 화학성의 평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, 적정량의 비료 사용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수사항으로 요구되고 있다.
-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별 대표성 있는 토양 화학성 평균 자료를 정책에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토양관리와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- 고윤정 연구사는 “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하여 도내 농경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양검정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로 말했다.